

광주서 유망 AI팹리스 기업·전문가 컨퍼런스 연다



내일 ‘클러스터 조성 미래전략’ 주제 100여명 참석…AI 현장 목소리 청취 7개사와 협약…광주법인 개소식도 “기술 개발·사업화 등 실질적 협력”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과 AI 전문가들이 모여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2일 광주실감콘텐츠(GCC) 3층 MX스튜디오에서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과 AI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실증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AI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AI반도체 산업 현황·전망’,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이 ‘광주 AI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현서 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팹리스의 집적과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며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과 팹리스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이를 위한 광주시의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인 ㈜에이디테크놀로지 박준규대표이사, 팹

리스 기업인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이사 와 ㈜딥엑스 김정옥 부사장, IP밴더 기업인 ㈜에임퓨처 김창수 대표이사 와 베리실리온 오유섭 한국지사장이 참석해 ‘광주 팹리스 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AI 팹리스 클러스터 허브 IN 광주, 얼라이언스 콜로키움’ 행사도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인공지능융합사업단, ETRI 호남권연구본부,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주최한다.

광주 유치 팹리스 2호 기업인 ㈜에임퓨처 광주법인의 개소를 축하하고, 광주가 AI팹리스 클러스터 허브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낼 핵심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

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광주시와 국내외 유망 팹리스기업 7개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팹리스기업은 ㈜웨이브글로벌, ㈜나노링크 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베리실리온 코리아, 텐스토렌트 코리아, ㈜비트리, ㈜잇다반도체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광주는 기술 기반 산업도시로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들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경총, 13일 강운태 전 시장 초청 강연

시민 자치공동체 실현 등 주제

광주경총자치총합회는 오는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지도자의 길, 일어나라! 빛을 받하라’를 주제로 제1688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제6대·11대 광주광역시장을 역임했고 5·18민주화 운동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광주인권헌장 제정 및 인권지표 개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기아 챔피언스 필드 건립,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등의 업적을 남겼다. 이번 포럼에서는 △생명의 근원, 우주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세계를

빛낸 인권기록 △시민 자치공동체 실현 △지도자의 핵심 키워드 △간구속에 아우러진 사례 △직업(일)은 삶의 영양소 △봉사는 받는 것이 훨씬 크다 등 삶의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강운태 전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광주비엔날레를 창설, 지방화와 세계화를 결합해 한국문화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새로운 차원의 선구적 문화 활동이 모델이 됐다”며 “행정과 정치의 중도적 입장을 견지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오늘 공공기관 참여 매칭데이 운영 1대1 맞춤형 구매상담·전시회 병행

광주광역시시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 공공기관·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혁신기관 및 기업 등 22개 기관,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 60여곳이 참여한다.

매칭데이 현장에서는 공공기관과 사회

적경제기업 간 1대1 맞춤형 구매상담이 진행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같이 가치 UP 프로젝트’ 상품 품평회도 열린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담 △인증·각종 지원사업 안내 △공공조달 진출 전략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시상담 부스를 운영,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을 설명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매칭데이는 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을 직접 만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우선구매 제도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를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 연계를 일상화하고,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이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성장팀(062-531-666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현대차,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 판매 개시

5분 충전으로 최대 720km 주행

현대자동차가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 이하 넥쏘)’의 주요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FCEV) 넥쏘는 2018년 3월 첫 출시 이후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현대차의 수소 에너지 비전과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을 상징하는 차세대 승용 수소전기차다.

넥쏘는 △도심과 아웃도어를 아우르는 단단하고 세련된 미래지향적 스타일 △최대 720km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최고 모터 출력 150

kW 기반의 고효율 동력성능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사양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넥쏘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 트림을 3개 트림으로 확대 운영하며, 판매가격은 △익스클루시브 7644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7928만원 △프레스티지 8345만원이다. (세제혜택 적용 후 기준)

여기에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700만~1500만원 가량을 모두 지원받을 경우 시작가격 기준 약 3894만원부터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별 보조금 상이, 지자체 보조금 최대 지원 기준)

박소영 기자



디 올 뉴 넥쏘. 현대차 제공

광주신세계, 여름철 무더위 대비 아이템 선봬

15일까지 ‘쿨썸머 아이스 베딩 대전’

광주신세계가 여름 무더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 생활 매장에서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냉감 침구를 할인 혜택가에 판매하고 있다.

‘알레르망’ 매장에서는 아이스베어 냉감 캔디쿠션을 8만4000원, 아이스베어 냉감 패드를 9만9000원에 판매한다.

‘운현궁’에서는 여름 프로모션으로 냉감 매트 5만9000원, 냉감 이불 6만7500원에 할인 판매하며 ‘코지네스트’에서는 텐버냉감패드 9만7500원, 프레쉬 여름냉감이불 1만원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인다.

또한 ‘클라르하임’ 프리즈닝 냉감이불 7만9000원, 냉감인형 7만9000원, ‘더조 선호텔’ 실비어 냉감 차렵이불(Q) 17만원 등 다양한 냉감 이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5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운현궁, 세사, 알레르망, 코지네스트, 로라에솔리 등이 참여하는 ‘쿨썸머 아이스 베딩 대전’을 진행한다.

더불어 공기를 효율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선풍기도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광주신세계 본관 8층 ‘클라르하임’ 매장에서 직원이 냉감원단을 사용한 쿠션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수 있다.

본관 8층의 ‘발뮤다’에서는 사계절용으로 사용가능한 ‘그린팬’을 6월 한달 간 할인가에 선보인다.

‘그린팬 스튜디오’는 17% 할인된 가격인 49만9000원, ‘그린팬 에스 1800’은 18% 할인가인 44만9000원에 선보인

다.

광주신세계 김영민 식품생활팀장은 “낮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더위 해소를 위한 아이템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광주신세계에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